

미래형 상용차산업 육성 청사진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계획 밑그림 스마트·친환경화 등 4대 목표 세부전략 구체화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기본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라북도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전북 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형 상용차 연구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포함하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새만금 수변도로 활용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한 가운데 전북도 진흥 정부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도의회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과 박재만 의원을 포함해 자동차융합기술원, 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대학교, 상용완성차기업 등 산학연관의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형 상용차 산업의 육성 방안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관련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KIET)의 이항구 박사는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에 따라 글

로벌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안전·편의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14개 세부전략을 구체화할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융복합 기술 개발,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융합형 협업 촉진 등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방향에는 주행시험장-새만금 수변도로-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신도시를 연계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구축과 상용차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함한 체계적인 하부구조 구축, 대물 부품 중심의 역내 생산구조 전환 및 국가단지의 연계 육성,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및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과 전문가들은 상용차의 미래기술이 연비, 안전, 친환경 등 3대 핵심분야와 상용

차 지능형 안전 기술의 확보, 지속성을 위한 연비향상 및 친환경차 기술개발, 트럭의 군집주행 기술확보 등 미래형 상용차 기술을 선도할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흥 정부부지사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아 힘써 주신 위원 및 전문가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친환경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시연되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와 함께 "적시에 국가정책과 연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 국책사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 전파 확산

선관위, 전주 한옥마을서 '선거야 놀자' 행사 개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전주한옥마을 경계전 앞 광장에서 '선거야 놀자 - 프리시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를 모티브로 유권자 참여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크와 플래시몹의 식전 공연과 함께 댄스 및 보컬 버스킹 공연, 양오빠의 스탠딩 코미디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지방선거, 투표하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미니토크에서 유권자와 패널리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아름다운 선거' 브랜드의 상시 홍보를 통해 법도민적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전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개헌논의, 장애인 목소리 반드시 반영"

김광수 의원, 개헌방향 토론회 권리 보장 논의 본격화 강조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전방적인 논의를 본격화 하고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8일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사진)은 "1987년 헌법 조문의 장애인 관련 조항은 '신체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등 현시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장애 패러다임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국가이며, 문재인대통령 또한, 협약정신에 입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공약화했기에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개헌논의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것

개헌논의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정실장이 맡았다.

한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는 김광수, 윤소하, 김상희 국회의원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네트워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정책 전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첫 발 내딛다'

도, 추진준비단 공식 출범 총괄기획·컨텐츠개발팀 기반시설팀 등 3개팀 구성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추진준비단을 발족하고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성공 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1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준비단' (이하 '잼버리 추진준비단')은 총괄기획TF, 콘텐츠개발TF, 기반시설TF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단장을 맡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준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 구성과 연계하여 연말에 있을 도 조직개편 시 정식 조직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준비단은 세계 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 그리고 성공적 개최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잼버리와 연계한 전북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전북연구원 내에 구성된 자체 TF팀과 상호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준비단 출범식이 28일 도청 18층 사무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도지사와 양부지사, 최병관 총괄 단장을 비롯한 총괄기획TF, 콘텐츠개발TF, 기반시설TF등 3개팀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출범식을 갖고 있다.

TF팀별 주요 업무로는, 총괄기획팀에서 세계 잼버리 준비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조직위원회 구성 등 전북도 차원의 추진체계(안)를 마련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연계사업 발굴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 등이다.

Et, 콘텐츠개발팀에서는 Pre 잼버리

행사 유치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다.

기반시설팀에서는 행사장 기반과 지원시설 조성 및 신규 SOC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TF팀 운영은 매주 추진단장(또는 부단장) 주재로 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지사는 사무실 개소 현판식에서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 있는 날로추진준비단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빈틈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추석 성수식품 안심하고 드세요"

한과·두부·사과 등 283건 유해물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유탉수)은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식약처 및 도·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한과, 두부,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8건과 사과, 명태, 조기 등

농수산물 35건을 합쳐 총 283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미생물오염, 타르색소,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규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추석 성수식품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굴비 등 수산물 3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식품이 유통되는 추석을 맞아 위해우려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